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박윤영 · 심운상 · 오경균 · 이용식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10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에서 병리조직학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54례의 선양낭성암종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자가 27례, 여자가 27례로 남녀비는 1:1이었고 평균연령은 47.7세였다. 발생부위별로는 주타액선에 19례(35.2%), 소타액선에 35례(64.8%)로 소타액선에 많았다. 주타액선에서는 악하선에 13례, 이하선에 4례, 설하선에 2례였고, 소타액선에서는 상악동, 접형동 및 비강 내에 16례, 구강에 12례, 구개인두에 4례, 기관, 귀, 비인강에 각가 1례의 순이었다. 임상적 병기는 1기가 11례(20.4%), 2기가 18례(33.3%), 3기가 10례(18.5%), 4기가 15례(27.8%)였다. 초치료는 수술만 시행한 경우가 12례, 수술과 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27례,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경우가 12례였고, 진단시 원격전이가 있었던 4례 중 3례에서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었다. 치료 후 재발 양상은 24례에서 발견되었고, 국소재발이 11례(45.8%), 원격전이가 7례(29.2%),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6례(25.0%)였다. 17례의 원격전이 중에서 폐전이가 10례(58.8%)로 가장 많았고 골전이가 4례, 폐전이와 골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1례였으며, 폐전이와 간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와 뇌전이도 각각 1례였다.

6

이하선 종양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박석진 · 심운상 · 오경균 · 이용식 · 김승태

이하선종양은 전 타액선종양의 75~80%를 차지하는 종양으로 다양한 조직병리학적 소견, 안면 신경과의 연관성 및 타 종양과의 생물학적 특성이 틀린 점 등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에서 조직병리학적으로 이하선 종양으로 확진되어 치료한 119

례에 대하여 임상적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19례중 양성종양은 71례, 악성종양은 48례로 양성종양이 59.7%를 점유했으며, 환자의 연령분포는 12세부터 75세까지였다(평균 연령 45.2세). 남녀비는 1:1.1 이었으나, 각 성별에서 악성종양의 빈도는 남자에서 51.0%, 여자에서 30.6%로 남자에서 악성종양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직병리학적 분류를 보면, 양성종양에서는 양성혼합종 60례(84.5%), Warthin 종양 4례(5.6%)순이었으며, 악성종양에서는 점액표피양암종 17례(35.4%), 선양낭포암종 9례(18.8%), 악성혼합종 7례(14.6%), 선암종 6례(12.5%)의 순이었다. 치료는 수술적 절제를 원칙으로 종양의 위치에 따라 표재엽절제술, 전엽절제술 및 경부청소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악성종양의 경우 21례에서 술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다.

7

두개저에 발생한 동맥류성 골낭 1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이용식 · 박윤영

보통의 동맥류성 골낭은, 골지주나 골성조직 그리고 골파괴성 거대세포를 함유한 결합조직에 의해 구별되며, 혈액이 차 있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로 이루어진 확장성 골용해성 병변이다. 이에 비해 고형의 동맥류성 골낭은 섬유모세포성, 골파괴성, 골형성성, 동맥류성, 섬유점액성 요소를 가진 색다른 고형성 골병변이다. 고형의 동맥류성 골낭은 종양 유사 병변이며 손상에 대한 특수한 골작용으로 생각된다. 소파술로 치료가 되며 예후는 좋은 편이다.

저자들은 두개저에 발생한 동맥류성 골낭 1례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29세 여자환자로 4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한 좌측 안면신경마비, 난청 및 복시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제 6, 7, 11, 12번 뇌신경의 마비소견이 있었으며 전산화 단층 촬영상 소뇌 교각에서 제 1경추까지 내려가는 종괴소견을 보였다. 이에 두개저에 발생한 신경원성 종양을 의심하여 경추두골미로상부접근법에 의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상

동맥류성 골낭으로 나왔으며, 술후 1개월째 특별한 후유증 없이 추적 관찰 중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조은형 · 정응윤 · 박정수

8

### 후두결핵에 대한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최진호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1960년대 이후 범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결핵은 많이 감소하였다. 이에따라 후두결핵도 많이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후두암의 대표적 감별 진단으로서 후두결핵의 임상적 의의는 중요하다.

저자들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후두결핵으로 진단받은 33례에 대한 임상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26례, 여자 7례로 남녀비는 3.7:1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2례(36%)로 가장 많았고 30대 7례(21%), 50대 6례(18%) 순이었다. 환자의 주소는 대개 두가지 이상의 증세가 중첩되어 여성이 24례(72%)로 가장 많았고 인후통 15례(45%), 객담 배출 14례(42%), 연하통 12례(36%), 기침 8례(24%) 순이었다. 병변 부위는 대개 다발성으로 성대에 17(51%)례로 가장 많았고 후두개 12례(36%), 피열 연골 7례(21%), 가성대 5례(15%) 순이었다. 31례(93%)에서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상 폐결핵 소견을 보였다. 4례(12%)에서 경부 림프절 종창이 동반되었다. 진단은 병리조직학적 소견에 의하였으며, 외래주적이 가능하였던 환자에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 후두암과 동반된 환자는 없었다.

9

### 갑상선낭종의 OK-432 경화요법

갑상선낭종 치료로 과거에는 단순흡입술이나 수술에 의존했으나 근래에는 낭종핵 흡입후 tetracycline 제제나 ethanol을 주입하는 경화요법이 소개되고 있다. Tetracycline 제제는 현재 효과면에서 다소간의 이견이 있어 최근에는 tetracycline 제제보다는 ethanol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Ethanol이 효과면에서 우수하기는 하나 주입시 심한 통증, 혈종, ethanol 유출로 인한 조직유착,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정상조직의 주입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초음파 유도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경화요법시 정상조직으로 주입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이 적고 초음파유도 없이도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경화제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목 적 : 저자들은 면역증강제로 개발된 OK-432를 갑상선낭종의 경화요법으로 도입하여 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1월부터 1995년 12월말까지 초음파검사상 순수낭종이거나 혼합낭종중 초음파검사상 낭성부분이 대부분(90%이상)을 차지하는 낭성우위혼합낭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는 48례(7례는 순수낭종, 41례는 낭성우위혼합낭종)였는데 남자가 6례, 여자가 42례이었고, 평균연령은 39세(17~87) 이었다. 경화요법은 낭종액을 19G~21G 주사침으로 흡입해 내고 그 주사침을 통해 OK-432용액(0.2mg OK-432를 2cc 생리식염수에 용해시킨 용액)를 흡입해낸 낭종액의 1/10~1/5 용적만큼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번 흡입낭종액은 세포병리검사를 하였으며, 효과판정은 4~6주후에 초음파검사로 하였고 잔류낭종이 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였다. 경화요법은 개인에 따라 1~5회(평균 2.0회) 시행하였으며, 평균 추적 기간은 0개월(8~32개월)이었다.

결 과 : 초진시 낭종의 평균직경은 4.2cm(1.0~12.0cm)이었는데 추적기간중 48례 전례에서 낭종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잔류낭종의 크기에 따라 시술효과를 크게 3가지를 분류했을 때 잔류결절의 직경이 0.5cm 이하로 된 예가 32례(66.7%), 0.5~1.0cm사이 12례(25%), 1.0cm이상 4례(8.3%)로 분류되어 44례(91.7%)에서